

시사원정대 NIE 2022-12월호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교재 들여다보기

1) 시사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2) 경제탐험

최신 경제 뉴스와 경제 키워드 및 주목받는 슈퍼리치를 둘러싼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영화·드라마·웹툰 등을 활용한 경제 지식을 쌓으며 돈에 대한 감각과 이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3) IT 융합탐험

최근 IT(정보기술) 분야에서 화제가 되는 첨단 기술과 환경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코너.

4차 산업혁명시대와 필환경시대에 걸맞은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4) 문화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코너. 순수예술부터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에서의 체험 등 폭넓은 기사를 소개합니다. 매달 한국학교사서협회 소속 현직 사서선생님의 추천도서를 읽고 토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리딩북(별책부록)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신문의 사설·칼럼·기사를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읽기 능력과 논리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5) 리치북(책 속 부록)

최신 주목 받았던 경제 이슈 중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금융경제 상식을 쌓고 자신의 생활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다.

2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NIE 12월호 2주 (90분)		
학습 목표	봉화 광산 매물 사고에 대해 알아본다. '체리슈머'의 개념과 소비자 관련 용어를 살펴본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알아본다.		
활동 초점	- 봉화 광산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본다. - '체리슈머'라는 용어가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알아본다. -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8
펼치기	-리딩북(별책부록) 6~11 맞춤칼럼 초급 - 봉화 광산의 기적	- 봉화 광산 매물 사고 - 문단별 핵심 문장 파악	25
	- 58~61 키워드가 머니 - 체리슈머가 뭐니?	- 체리슈머 - 현명한 소비자 유형	25
	- 82~85 화제의 Item - 늘이고 비틀고 붙이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활용 범위	25
마무리	-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 다음 주 수업 예고	- 체리슈머처럼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어떤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할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본다.	7

[20 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NIE 12월호 2주		
학습 목표	'체리슈머'의 개념과 소비자 관련 용어를 살펴본다.		
활동 초점	- '체리슈머'라는 용어가 탄생한 시대적 배경과 특징을 알아본다.		
구분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58~61 키워드가 머니 - 체리슈머가 뭐니?	- 체리슈머 - 현명한 소비자 유형	15
마무리	- 다음 주 수업 예고 -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활동 안내	- 체리슈머처럼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어떤 소비 습관을 들여야 할지 생각해보고 실천해본다.	2

맞춤칼럼 초급

봉화 광산의 기적

<어휘 UP>

소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생존: 살아 있음.

여부: 그러함과 그러지 아니함.

공급: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제공함.

<발문>

1. 본문을 읽고 봉화 광산에 매몰됐던 광부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해 보자.
2. 봉화 광산 매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조사하고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의견을 나눠보자.

<교사 참고자료>

봉화광산 매몰 2명, 9일만에 기적 생환

경북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작업자 2 명이 사고 열흘째인 4 일 기적처럼 생환했다. 작업자들은 갱도에서 자력으로 걸어 나왔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매몰사고로 고립됐던 작업자 조장 A 씨(62)와 보조작업자 B 씨(56)가 고립 219 시간 만인 이날 오후 11 시 3 분 사고지점인 제 1 수직갱도 인근에서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현장에서 구조과정을 지켜보던 A, B 씨 가족들과 구조대원 등은 환호성을 지르며 두 사람을 맞았다.

A 씨의 아들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머니와 대기실에 있었는데 갑자기 구조대원과 차량이 긴급하게 움직였다. 이어 두 분이 걸어서 나오셨다. 건강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B 씨의 형은 "(동생이) 걸어서 나오는 모습을 봤다. 예상보다 훨씬 (고립) 환경이 좋았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온 국민들이 마음 써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린다"고 했다. B 씨의 조카는 "애써주신 구조대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울먹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갱도 내부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조된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당국은 전했다.

사고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경 해당 광산 제 1수직갱도 아래 30여 m 지점 폐갱도에 채워져 있던 모래와 흙 약 900t 밑으로 쏟아지며 발생했다.

제1 수직갱도에서 모래와 흙 900t이 쏟아져 내렸고, 지하 190m 지점에서 작업하던 조장 A 씨와 보조 작업자 B 씨가 고립됐다.

이 광산에선 올 8월에도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업체 측은 자체 구조를 시도하다가 14시간이 지난 뒤에야 119에 신고하고 가족들에게 알렸다.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고립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갱도 안이 가로세로 각각 4.5m로 넓고 산소와 지하수도 있는 만큼 초반부터 고립된 작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매몰되지 않은 제2 갱도로 지하 140m까지 내려간 뒤 A, B 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제1 갱도 쪽으로 진입로를 뚫었다.

구조 지점까지 거리는 145m가량으로 예상했는데 중간중간 단단한 암석 구간이 있어 작업이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갱도라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변형이 심하게 온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처음에 '지난달 29일경'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던 구조 시점은 '지난달 31일' '이달 1일' 등으로 계속 밀렸다.

희망고문에 시달리다가 탈진한 가족들은 10일째가 되던 4일 '꼭 버텨 달라'는 편지를 써 미음, 보온덮개, 해열제 등과 함께 구조당국이 시추한 공간을 통해 고립된 작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보냈다.

A 씨는 40여 년 전 부인과 결혼했고, 장인을 따라 광부의 길을 택했다. 지금은 2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베테랑 작업자다. B 씨는 광부 일을 한 지 1년 남짓 됐지만 사고가 난 광산으로 온 지는 4일밖에 안 됐다고 한다.

[동아일보 2022-11-05]

키워드가 머니

체리슈머가 뭐니?

<어휘 UP>

소비: 돈이나 물자, 시간 등을 들이거나 써서 없앴.

한정: 수량이나 범위 등을 제한해 정함.

도입: 기술, 방법, 물자 등을 끌어 들임.

직결: 사이에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고 직접 연결됨.

보급률: 널리 전달되어 골고루 퍼진 정도.

<발문>

1. 슬기로운 소비 습관을 기르기 위한 규칙 3가지를 적어보자.
2. 기사에서 소개된 슬기로운 소비자 유형 외에 똑똑하게 소비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추가로 조사해 보자.

<교사 참고자료>

“난 멋진 소비자” 스마트슈머 뜬다

“디미플리에, 그랑플리에...”

7 일 오후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한 발레 학원. 이곳에서 만난 10 여 명의 성인 여성 수강생들은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발레 동작을 의미하는 구호에 맞춰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발레 배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김나경 씨(33·서울 용산구)도 이중 한 명. 매주 세 번씩 발레학원에서 레슨을 받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동경해 왔던 ‘백조의 호수’ 공연에 출연할 꿈을 키우고 있다. 김 씨가 다니는 학원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자체 공연을 통해 수강생 누구에게나 ‘발레리나’가 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는 “가벼운 마음으로 클래식 문화생활도 즐기고 다이어트나 자세 교정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어 만족스럽다”면서 “필요에 따라 개인 강습 등을 받으려면 만만찮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

불황 속에서도 김 씨처럼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는 ‘스마트슈머(smartsumer)’들이 신(新)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절약하거나 저가의 대체용품(립스틱 효과)에 만족하지 않는다. 쓸 것은 쓰되 이를 통한 문화생활, 건강, 인테리어 등 부수적 효과까지 누리려는 일명 ‘똑똑한 소비자’들로 불린다.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가 내놓은 ‘트렌드 코리아 2009’ 보고서에 따르면 김 씨처럼 오페라나 발레와 같은 ‘고급문화’를 일상 속에서는 즐기는 일종의 ‘캐주얼 클래식’ 열풍은 그동안 보여주기 위한 ‘명품’ 소비에서 한 계단 진보한 자기만족형 소비 형태로 정의된다.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고급문화에 대한 소비를 통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갖거나 자기 계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때문이다.

스마트슈머의 마음을 파고드는 제품개발도 활발하다. 이미 가전제품을 ‘가구’로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기 위해 인테리어 기능은 물론이고 건강 기능까지 갖춘 일명 ‘헬스테리어’ 제품 등이 속속 나오고 있다. LG 전자는 하상림 작가의 예술 작품과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장식이 들어간 냉장고를 내놨다. 공기 정화와 무드라이팅 기능을 함께 갖춘 공기청정기 등도 호응을 얻고 있다.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불황 속에서도 스마트슈머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스스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려는 ‘I am so Hot(난 너무 멋져)’ 욕구가 강하다”며 “기업들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할 만한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2009-07-11]

화제의 ITeM

늘이고 비틀고 붙이는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어휘 UP>

최초: 맨 처음.

표시: 겉으로 드러내 보임.

신체: 사람의 몸.

<발문>

1. 본문을 읽고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의 특징을 3가지 꼽아 발표해 보자.
2. 내가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사용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보자.

<교사 참고자료>

늘이고 비틀는 디스플레이... 옷처럼 입는 IT기기 시대

미래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얇은 화면을 손에 들고 마음대로 접고 늘이고 구겼다 폼다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상용화에 한발 더 다가섰다.

LG 디스플레이는 미래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는 고품질 '스트레처블(Stretchable) 디스플레이' 개발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늘이기, 접기, 비틀기 등 어떤 형태로도 자유롭게 변형이 가능해 궁극의 '프리폼(Free-Form) 디스플레이'로 불린다.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공개한 시제품은 세계 최초로 △12인치 화면이 14인치까지 신축성 있게 늘어나면서도(20% 연신율) △일반 모니터 수준의 고해상도이며 △적녹청(RGB) 풀컬러를 동시에 구현했다. 지난해 6월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서도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전자 피부를 개발하는 등 관련 연구가 이어졌지만 통상적인 디스플레이 수준의 해상도와 풀컬러를 구현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기술의 핵심인 유연성, 내구성, 신뢰성을 기존 대비 획기적으로 높여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난제를 극복했다는 설명이다. 콘택트렌즈에 쓰이는 특수 실리콘 소재로 신축성이 뛰어난 필름 형태의 기판을 개발해 유연성을 크게 높였다는 것이다. 40 μ m(마이크로미터·1 μ m는 100만분의 1m) 이하의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 발광원을 사용해 외부 충격에도 화질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내구성도 확보했다. 기존의 직선 형태 배선 구조를 'S자' 스프링 형태 배선 구조로 바꾸는 등 설계를 최적화해 반복해서 구부리거나 접어도 성능을 유지하도록 했다.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는 얇고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부나 의류, 가구 등 불규칙한 굴곡면에도 접착할 수 있다. 옷처럼 입거나 몸에 부착하는 정보기술(IT) 기기 시대를 가능케 해 웨어러블, 모빌리티, 스마트 기기, 게이밍, 패션 등 다양한 산업에 폭넓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수영 LG디스플레이 최고기술책임자(CTO·부사장)는 "정부 주도의 국책 과제로 개발 중인 스트레처블 디스플레이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고, 디스플레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22-11-09]